



BUY (유지)

목표주가(12M) 11,000원
현재주가(1.31) 8,09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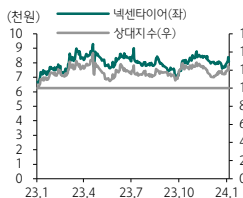
Key Data

KOSPI 지수 (pt)	2,497.09
52주 최고/최저(원)	9,290/6,700
시가총액(십억원)	790.1
시가총액비중(%)	0.04
발행주식수(천주)	97,667.9
60일 평균 거래량(천주)	88.2
60일 평균 거래대금(십억원)	0.7
외국인지분율(%)	6.03
주요주주 지분율(%)	
넥센 외 2인	67.66
국민연금공단	7.07

Consensus Data

	2023	2024
매출액(십억원)	2,734.7	2,911.4
영업이익(십억원)	191.7	260.2
순이익(십억원)	135.9	179.0
EPS(원)	1,311	1,734
BPS(원)	16,773	18,692

Stock Price



Financial Data (십억원, %, 배, 원)

투자지표	2021	2022	2023F	2024F
매출액	2,079.4	2,597.4	2,701.7	2,888.6
영업이익	4.4	(54.3)	186.7	291.1
세전이익	16.5	(40.3)	153.2	261.4
순이익	4.8	(27.8)	110.3	194.2
EPS	46	(267)	1,059	1,864
증감율	흑전	적전	흑전	76.02
PER	148.26	(22.92)	7.59	4.34
PBR	0.44	0.40	0.50	0.45
EV/EBITDA	8.43	14.87	5.47	3.86
ROE	0.31	(1.74)	6.73	10.91
BPS	15,347	15,279	16,239	18,005
DPS	105	100	100	100



Analyst 송선재 sunjae.song@hanafn.com
RA 안도현 dohyunahn@hanafn.com

하나증권 리서치센터

2024년 02월 01일 | 기업분석

넥센타이어 (002350)

저 이제 다 나왔어요!

외형과 수익성 모두 회복. 이제는 성장

넥센타이어에 대한 투자 의견 BUY와 목표주가 1.1만원(목표 P/B 0.6배)을 유지한다. 4분기 실적은 시장 기대치를 하회했지만, 일회성 비용을 제거할 경우 실질적으로는 상회한 것으로 평가한다. 2024년에는 지정학적 이슈가 있지만, OE/RE 양쪽에서 생산능력 증대와 신규 거래선으로의 납품 증가 등에 힘입어 양호한 외형 성장이 기대된다. 외형 확대와 함께 재료비/운임비가 하락한 효과가 연간 반영되면서 수익성도 개선될 전망이다. 현재 주가는 2024년 기준 P/E 4배대, P/B 0.4배대의 Valuation으로 실적 개선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저평가된 상태라는 판단이다.

4Q23 Review: 영업이익률 9.4% 기록

4분기 실적은 일회성 비용으로 시장 기대치를 상회했다(영업이익 기준 -7%). 매출액/영업이익은 -3%/+487% (YoY) 변동한 6,781억원/639억원(영업이익률 9.4%, +7.9%p (YoY))을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한국/북미 매출액이 2%/36% (YoY) 증가했지만, 유럽/기타 매출액이 8%/34% (YoY) 감소하면서 연결 매출액이 감소했다. 외형 축소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률은 대폭 상승하면서 9.4%를 기록했는데, 일회성 비용이 약 200억원 중후반(미국 반덤핑 관세의 추가 적립+인건비)이 있었다는 점에서 이를 조정한 영업이익률은 13% 중반이었을 것으로 추정한다. 2020년~2022년 이익률 급락을 이끌었던 운반비가 크게 낮아졌고, 원재료 투입원가도 하락하면서 매출총이익률이 2019년 이전의 30%대로 상승한 덕분이다(4Q23 32.5%).

컨퍼런스 콜의 내용: 2024년 매출액 7% 증가한 2.9조원 목표

넥센타이어는 지정학적 이슈가 있지만, 안정적인 시장상황과 체코 2공장의 증설효과(+250~300만개)에 힘입어 2024년 매출액으로 7% 증가한 2.9조원을 목표하고 있다. OE/RE 모두 안정적 성장을 기대 중인데, OE에서는 신규 수주분의 공급 확대, RE에서는 주요 지역 내 유통업체들의 재고 확충 및 월마트와 같은 신규 거래선으로의 공급 증가로 물량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주요 비용과 관련해서는 2023년 하락했던 원재료 Spot 가격 및 운임이 낮게 유지되겠지만, 유가 상승과 지정학적 위험으로 비용이 다시 상승할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체적으로 외형 성장에 힘입어 영업이익률이 2023년 6.9%에서 2024년 두 자릿수로 상승하는 것을 목표 중이다. 전기차용 타이어의 비중은 OE 물량(전체 물량의 20% 비중) 중 8% 정도인데, 2024년에는 신규 차종으로의 공급으로 10%까지 높아질 것으로 전망 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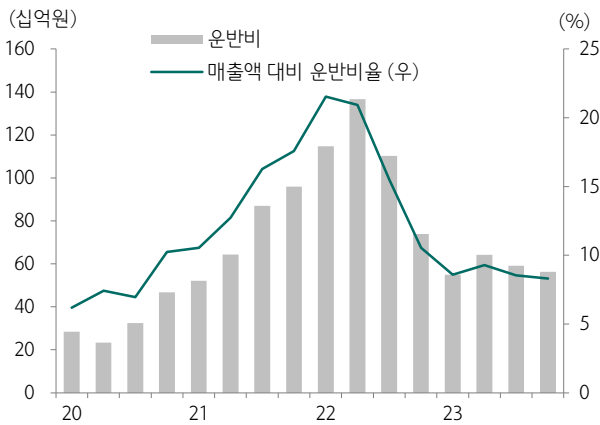
도표 1. 넥센타이어의 분기실적 추이

(단위: 십억원, \$)

구분	1Q23	2Q23	3Q23	4Q23P	1Q24F	2Q24F	3Q24F	4Q24F	2021	2022	2023P	2024F	2025F
매출액	640	691	693	678	691	725	740	732	2,079	2,597	2,702	2,889	3,014
한국	111	112	113	118	114	113	116	120	374	409	454	464	473
북미	163	171	198	191	182	181	215	210	538	679	722	788	828
유럽	221	276	244	264	248	295	266	290	696	948	1,005	1,099	1,154
기타	145	133	138	106	148	136	142	112	343	561	522	537	559
매출원가	498	516	489	458	489	506	520	491	1,640	2,166	1,960	2,006	2,098
매출원가율	77.8%	74.6%	70.6%	67.5%	70.7%	69.8%	70.2%	67.0%	78.9%	83.4%	72.6%	69.4%	69.6%
운반비	55	64	59	56	57	60	63	62	299	436	234	243	247
운반비율	8.6%	9.3%	8.5%	8.3%	8.3%	8.3%	8.5%	8.5%	14.4%	16.8%	8.7%	8.4%	8.2%
판매비	126	138	134	156	133	146	143	170	435	486	555	592	604
판매비율	19.7%	20.0%	19.4%	23.1%	19.3%	20.1%	19.3%	23.2%	20.9%	18.7%	20.5%	20.5%	20.0%
영업이익	16	37	70	64	69	73	78	72	4	(54)	187	291	312
영업이익률	2.5%	5.4%	10.1%	9.4%	10.0%	10.1%	10.5%	9.8%	0.2%	-2.1%	6.9%	10.1%	10.3%
세전이익	19	29	66	39	64	69	73	56	16	(40)	153	261	282
세전이익률	2.9%	4.2%	9.6%	5.7%	9.3%	9.5%	9.8%	7.6%	0.8%	-1.6%	5.7%	9.0%	9.4%
순이익	11	28	53	18	48	52	54	40	5	(28)	110	194	209
순이익률	1.8%	4.1%	7.6%	2.7%	7.0%	7.2%	7.3%	5.5%	0.2%	-1.1%	4.1%	6.7%	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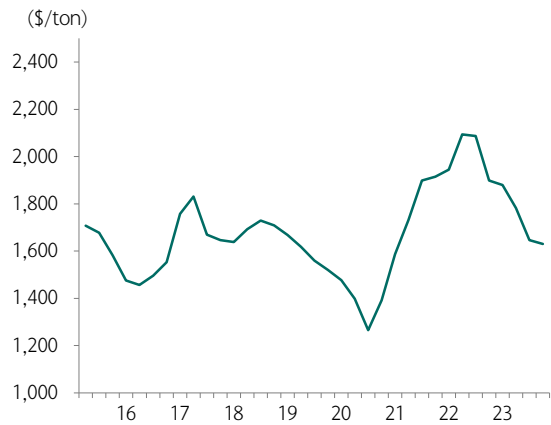
자료: 넥센타이어, 하나증권

도표 2. 넥센타이어의 운반비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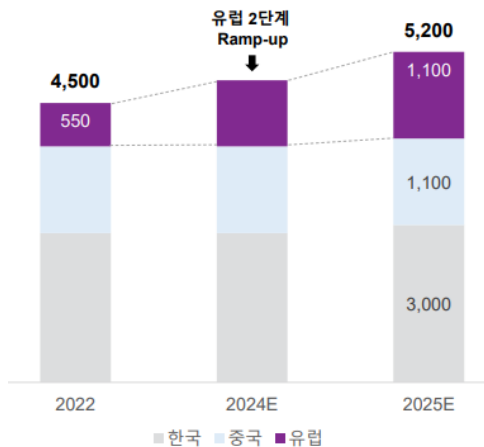
자료: 넥센타이어, 하나증권

도표 3. 넥센타이어의 투입원가 추이



자료: 넥센타이어, 하나증권

도표 4. 넥센타이어의 글로벌 생산능력 추이



자료: 넥센타이어

도표 5. 넥센타이어의 미국 공장 프로젝트 Timeline



자료: 넥센타이어

넥센타이어 4Q23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

1. 실적

[경영실적]

2023년 매출은 OE/RE 매출 모두 고르게 성장하면서 전년 대비 4% 증가한 2조 7017억 원, 영업이익도 코로나 이전 수준 수익성 가까이 회복하며 1867억원 기록, 영업이익률 6.9%. 2024년은 체코 2공장 물량 증가 효과와 안정적인 시장 상황을 감안해서 매출액은 전년 대비 약 7% 증가한 2.9조원, 영업이익 10% 대를 목표. 환율을 보수적으로 반영한 것.

4분기 매출은 2분기/3분기에 이어서 판매량/판가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며 매출액 6781억 원 기록. 매출원가율은 우호적인 원재료 시장가가 반영이 되었고, 내부적인 원재료 절감 노력으로 67.5% 달성. 원재료 구매처 다변화 및 계약조건 변경 등 강화된 원가 경쟁력을 토대로 향후에도 매출원가 개선을 위한 노력 지속 예정. 운송비도 올해 상반기까지 유효한 팀계약 갱신으로 매출액 대비 비중이 전분기 대비 추가 감소한 8.3% 기록. 최근 홍해발 이슈로 운임지수 급등, 실제 유럽행 물량에 서차지 부과되는 등 1분기 불확실성 커졌음. 하지만 미주/유럽 등 주요지역의 운임 계약이 이미 고정적으로 조율된 상태. 4분기 영업이익은 693억원 기록, 영업이익률은 9.4%로 전분기 대비 소폭 하락하였는데, 일회성비용과 12월부터 유럽체코2공장의 감가상각비 등 총 280억원 반영, 이를 반영하기 전 영업이익률은 13~14% 수준. 이는 외부감사인 검토 전 자료로서 검토 후 영업이익/영업이익률 상향 될 가능성도 있음

[지역별 매출]

북미시장 4분기 매출액 전년동기 대비 37% 증가, 전분기와 유사한 수준인 1909억원 기록. 고인치 비중은 45%로, 완성차 파업으로 인한 고인치 품목 판매 지연, 그리고 저인치 주력 공급 중인 월마트향 판매가 반영이 되면서 고인치 비중 감소. 월마트향 초기 판매가 안정되면 고인치로 규격 확장을 추진할 것. OE는 전미자동차노조 파업으로 인한 판매지연 불구, 스틸란티스 램 프로마스터/램 2500/3500등 공급 확대를 통해서 전년 동기 대비 매출 증가했음. RE는 월마트 지역별로 안전재고를 어느정도 축적한 후에 판매를 본격 개시하고자 했는데, 월마트 재고 조회 시스템 오류로 정상적인 매출 발생이 어려웠음. 성수기 판매를 통한 추가 매출 증대 기회를 아쉽게 놓침. 현재 시스템 정상화를 위해 노력 중인 상황으로, 2024년 RE 시장 수요회복 및 월마트 통한 외형성장도 기대. 2023년 북미 매출 중에서 RDC를 통한 매출 비중이 전년 대비 20%p 상승하는 등 자체 RDC를 통한 매출체계를 확대하고 있고, 유통간 M&A를 통한 대형유통사의 시장장악력이 확대되는 가운데, 장기적으로 판매 주도력 및 경쟁력을 확보하고자하는 당사의 노력

유럽 4분기 매출액은 2635억원, 3분기 슬로베니아 홍수로 자동차 부품 수급 차질로 폭스바겐 유럽 내 일부 공장이 섰다운되었는데 이번 분기에는 정상화되면서 전년대비/전분기 대비 OE 회복. RE 는 미국 RE 와 비슷하게 매출 추가 증대 기회 놓친 아쉬움 있음. 2023년 당사 생산능력 대비 고객오더 초과로 매출확대 기회 일부 상실, 체코 2공장 증설 통해서 오더 대응 기대 중. 외형성장 기대가 유럽 시장에서도 충분하다는 점을 강조.

한국은 제한된 시장 성장세와 경쟁심화속에서도 4분기 매출액은 전년/전분기 유사한 1181억원 기록. 고인치 비중은 약 40%로 1년 사이에 약 6%p 상승. OE는 4분기 KG모빌리티 전기차 공급 시작, 2023년 연간 총 20개 수준의 친환경차 공급확대하는 등 국내 시장 변화에 빠르게 대응. RE 는 렌탈 시장의 전반적 성장이 있었고, 제휴판매처/홈쇼핑/오프라인 등을 통한 당사 렌탈 판매 확대 지속, 국내 최초 타이어렌탈 및 방문자차 서비스 출시하면서 혁신을 주도하고 있는 넥스트레벨 서비스의 브랜드 활동 강화

기타지역은 중국 OE/RE 모두 회복 두드러졌으나 중국 로컬제조사 한정된 얘기. 중동/북아프리카 등 대안시장 경쟁심화 등 우호적이지 않은 경쟁상황. 당사는 중국에서의 온라인 확장 및 기아 중국의 수출에 따라 수출 증대하는 등 점진적으로 매출 증대 노력

[재무현황]

2019년 말 기존 자산 3.4조원 규모에서 23년말 자산 규모 4.2조원으로 자산 규모 확장 중. 주요 재무지표 또한 2023년 흑전 이후 안정적인 모습. 향후에도 안정적으로 관리할 것.

[2024년 전략]

당사는 프리미엄 차종 진입 및 대형 유통사 진입을 통한 인지도 제고 위해 노력 중 2023년 포르쉐 카이엔, 벤츠 e 클래스 등 OE 신규 공급 바탕으로 13개 브랜드 24개 차종에 신규 공급 시작. OE공급은 단순히 외형성장뿐만 아니라 완성차의 품질 테스트 통과하며 당사 기술력 입증/강화 및 인지도 제고하고 RE 판매 확대의 계기가 되는 것. 2024년 미국 2500여곳의 월마트 공급 통해서 미국 내 브랜드 인지도 제고 노력. EV향 공급도 점진적으로 확대 중, 2023년 OE 매출액 내 EV 매출액 비중은 8%, 추후 EV 매출 비중 더 증가할 것, 전기차 시장 성장 우려 있으나 방향성은 바뀌지 않는 것. 전기차용 타이어 라인업 강화 및 OE 공급 확대 노력할 것.

23년 체코2공장 증설 완료해서 초도 생산 중, 초기에는 초기에는 시행착오 있고, 대부분 하반기에 추가생산 물량 집중될 가능성 있음. 이를 통해 그동안 당사 생산능력 대비 초과된 오더물량 신속 대응 기대 중.

미국 공장 프로젝트는 29년 가동 목표로 올해 부지 선정 마무리할 것. 사이트 선정 결과는 신속하게 공유드릴 것. 정세도 면밀히 고려할 것.

주요기술역량 관련해서 VR/AI 활용 연구개발 역량 향상으로 시장 경쟁력을 높여가고 있고, 타이어 업계 선도하는 기술력 확보 노력 중.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2023년 Cj대한통운 레이스에서 트리플포디엄 달성 하는 등 단기간의 성과 입증 중.

스포츠마케팅 2분기 유벤투스 스폰서십 체결, 4분기 멘시티와 계약 연장, 뉴욕레인저스 공식 후원 등 글로벌 인지도 제고 노력 중, 특히 올해는 미국 생산 거점 구축과 맞물리게 선제적으로 미국 내 마케팅 활동 늘릴 것.

ESG 관련해서는 독일 아우토빌트 더그린타이어 수상 및 넥스트레벨 서비스가 4년연속 국가서비스대상 받음. 앞으로도 사회적 책임 다하고 기업가치 높일 것.

모빌리티 전영역 급격 변화에 대응하고자 2021년 실리콘밸리에 유망 스타트업 대상 투자 중, 현재까지 도심항공교통/자율주행/도심교통관리 분야에 투자했고, 이후에도 전략적 투자를 통해 데이터를 활용한 미래 모빌리티 산업 필요한 역량 확보할 것.

[Market Status]

23년 타이어 시장은 3% 성장, 2019년 수준 회복 중인 것으로 추정. 2022년 달러들의 선재고축적으로 인한 기저효과와 2023년 경기둔화로 인한 소비자 구매자 축소로 RE 시장은 성장률이 다소 저조, 하지만 OE는 완성차의 반도체 이슈 해소되고, 미국/중국 중심 신차 판매 수요 회복되면서 전년 대비 7% 성장한 것으로 추산.

24년은 OE/RE 모두 안정적 성장 예상, 특히 하반기에는 금리인하로 인한 소비활성화로 타이어 수요 추가 개선될 것으로 예상. RE 의 경우 북미 등 주요 지역에서 destocking이 점차 개선되고 있어서 23년 저조한 성장세 일부 만회 기대. OE 시장은 친환경차 정책 영향 있겠으나 당사는 안정적인 수주 바탕으로 공급 확대할 것으로 전망 중.

23년 전반적으로 원자재가 하향안정화되었으나 4분기 일부 상승 움직임 있었음. 10월초 WTI 90달러까지 상승하면서 합성고무의 원료인 부타디엔 가격도 천불선 유지. 불황에 대응하려고 재고를 최소화했던 상황이 맞물리면서, 합성고무 가격이 3분기 대비 높은 수준에서 보합, 이는 천연고무의 가격 상승에도 일부 영향. 이후 유가는 70불 수준에서 횡보했고, 이에 연동된 합성고무 가격은 향후 가격 움직임 주시할 필요. 천연고무는 동남아 우기 장기화되면서 피크시즌의 생산량 및 수율이 전년 대비 줄었으며, 단기적으로 공급 부족에 의한 천연고무 가격을 예의 주시 중. 천연고무/합성고무 업체가가 장기화된 수요부진, 가격하락, 고금리에 대응하고자 재고 타이트하게 운영 중, 단기적으로는 수요 보다는 신규 공급량 및 생산업체 재고량이 가격의 주된 동인이 될 것 같음.

2023년 운임지수 안정적이었으나 연말 홍해 리스크로 급격히 컨테이너 운임지수 급등, 2024년 1월 말에 2179pt 까지 상승. 홍해 해운이 안정화 되고, 춘절 성수기 종료될 때까지는 운임지수 높을 것으로 예상. 춘절 이후 신규선박 공급이 늘어나면 이를 통해 수급 안정화 여부를 확인할 것.

2. Q&A

문)유럽 2공장 2024년 생산량? BEP 전환 시기?

답)연말 기준으로 2공장 건설 일부 마무리 목표였는데, 12월부터 조기에 가동되면서 감가가 반영되었음. 기존 유럽 공장이 550만~500만 정도 캐파를 기존 보유했다면 여기에 2공장 추가되면서 capa 가 250~300만 정도 추가 될 것으로 계획 중. 2공장 별도 BEP 계산은 어렵고, 유럽 공장 전체 BEP 이익률은 하반기로 생각. 상반기중에서도 2분기에 어느정도 기대 중이긴 함.

문)전기차 성장세 둔화에 따른 당사 실적 영향은?

답)주요국 보조금 축소 있었으나 완성차 업체가 ev 생산 비중을 줄인다고 해서 전체 생산량이 줄어들지는 않음. ev 생산량이 줄더라도 내연기관 차생산은 늘 것, 공급량 자체는 큰 변동 없을 것. 당사 oe는 폭스바겐 전기차/내연기관차 공급 비중이 조절이 있었는데 내연기관차 생산 증가 수혜를 받기도 함.

문)최근 홍해 항 해상운송 이슈로 인한 철송 등 대안 마련은 있는지?

답)철송 운송 언급이 된건 타 업체의 중국생산 물량이 유럽향으로 판매할 때의 이슈인 것 같음. 저희가 유럽향 매출이 높다보니 유럽 생산분 이외의 수요는 한국산을 해상으로 보내고 있음. 나중에 철송을 고민해야한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아직은 중국 내 철송 운송 비중이 적고 통관도 어렵고 해서 단기간 내에 철송 비중을 높일 수 있는 것은 아님. 유럽향 텀계약이 올해 상반기까지는 유지, 서차지가 부과될 수는 있기는 함, 다만 저희는 서차지 부분에 경쟁력 있는 협상 한 상황이라서 안정적으로 방어할 것으로 기대 중.

문)타이어 렌탈 서비스 판매 비중과 향후 계획?

답)2023년 기준으로 한국 매출 내 10% 까지 올라왔음. 렌탈서비스를 빨리 시작을 해서 인지도를 마련해놓은 상황. 최근 온라인 중심 성장할 것으로 기대, 특히 자동차/부품 온라인 쇼핑 내 성장 기사 등이 있는데, 저희도 쿠팡 등을 통해 제휴 하고 있음.

문)케팩스 계획과 배당 정책 업데이트?

답)12월부터 개시된 유럽2공장 투자가 어느정도 완료가 되었음. 연초에 추가로 유럽 공장이 2공장 증설과 맞춰서 물류창고 확보 투자가 되면서 연초에 1000억원 있었음. 연간 일반적 capex가 800억원, 프로젝트 투자(ev 향)도 1000억원 정도, 연간 2500~2800억원으로 내부적으로 계획한 상황. 배당은 아직 저희가 결정이 된 부분이 없어서 공유 어려우나, 크게 변동이 없지 않을까 생각. 비슷한 기조를 따라가지 않을까 생각 중.

문)일회성 비용 있었다고 하셨는데, 세부적인 내용? 관세 환입 예상 규모 등 예상?

답)일회성 비용을 많이 반영을 하면서 손익 중 280억원이 영향을 받았음. 280억원 중 가장 크게 반덤핑관세 관련 회계 처리. 관세율 예비판정이 4.2%로 여름에 낮았고, 저희가 과거 매출 원가 단에서 3.1% 수준으로 반영하였던 상황. 판정 결과에 따라 1%p를 더 처리를 하면서 21년 1월~22년 1월까지임의 관세 판정임에도 불구하고 23년 까지의 미국 판매에 대해서 매출원가에 4.2%를 적용하면서 보수적으로 처리했음. 감가상각은 체코2공장 조기 가동으로 추가된 게 10억원 대, 80억원 정도가 인건비 보너스. 예비판정보다 더 낮은 수준으로 관세가 확정되면 환입이 되면서 마무리 될 것.

추정 재무제표

손익계산서	(단위:십억원)				
	2021	2022	2023F	2024F	2025F
매출액	2,079.4	2,597.4	2,701.7	2,888.6	3,013.6
매출원가	1,639.8	2,165.9	1,960.2	2,005.7	2,098.4
매출총이익	439.6	431.5	741.5	882.9	915.2
판매비	435.2	485.8	554.7	591.8	603.6
영업이익	4.4	(54.3)	186.7	291.1	311.5
금융손익	17.2	13.8	(32.7)	(25.8)	(25.9)
종속/관계기업손익	0.0	0.0	0.0	0.0	0.0
기타영업외손익	(5.1)	0.2	(0.8)	(3.8)	(3.8)
세전이익	16.5	(40.3)	153.2	261.4	281.9
법인세	11.8	(12.8)	42.6	66.7	71.9
계속사업이익	4.6	(27.5)	110.6	194.8	210.0
중단사업이익	0.0	0.0	0.0	0.0	0.0
당기순이익	4.6	(27.5)	110.6	194.8	210.0
비배주주지분 순이익	(0.2)	0.3	0.3	0.5	0.6
지배주주순이익	4.8	(27.8)	110.3	194.2	209.4
지배주주지분포괄이익	63.4	3.8	103.3	182.0	196.2
NOPAT	1.2	(37.0)	134.8	216.9	232.1
EBITDA	189.1	132.0	388.5	524.6	553.7
성장성(%)					
매출액증가율	22.45	24.91	4.02	6.92	4.33
NOPAT증가율	(97.67)	적전	흑전	60.91	7.01
EBITDA증가율	(16.55)	(30.20)	194.32	35.03	5.55
영업이익증가율	(88.83)	적전	흑전	55.92	7.01
(지배주주)순이익증가율	흑전	적전	흑전	76.07	7.83
EPS증가율	흑전	적전	흑전	76.02	7.89
수익성(%)					
매출총이익률	21.14	16.61	27.45	30.56	30.37
EBITDA이익률	9.09	5.08	14.38	18.16	18.37
영업이익률	0.21	(2.09)	6.91	10.08	10.34
계속사업이익률	0.22	(1.06)	4.09	6.74	6.97

투자지표	2021	2022	2023F	2024F	2025F
주당지표(원)					
EPS	46	(267)	1,059	1,864	2,011
BPS	15,347	15,279	16,239	18,005	19,916
CFPS	2,512	2,001	3,695	4,969	5,249
EBITDAPS	1,816	1,268	3,730	5,036	5,315
SPS	19,962	24,935	25,936	27,731	28,930
DPS	105	100	100	100	100
주가지표(배)					
PER	148.26	(22.92)	7.59	4.34	4.02
PBR	0.44	0.40	0.50	0.45	0.41
PCFR	2.71	3.06	2.18	1.63	1.54
EV/EBITDA	8.43	14.87	5.47	3.86	3.43
PSR	0.34	0.25	0.31	0.29	0.28
재무비율(%)					
ROE	0.31	(1.74)	6.73	10.91	10.62
ROA	0.13	(0.71)	2.74	4.56	4.70
ROIC	0.05	(1.41)	4.71	7.43	7.78
부채비율	138.97	147.10	142.17	134.84	116.20
순부채비율	56.37	84.00	77.33	62.65	50.40
이자보상배율(배)	0.23	(1.93)	4.54	5.85	6.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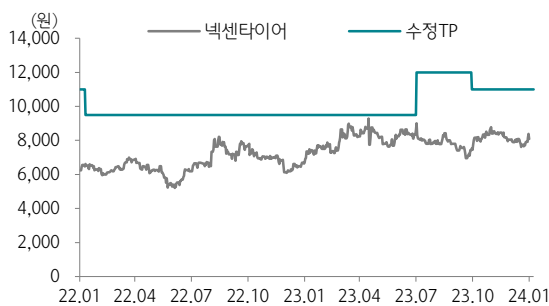
자료: 하나증권

대차대조표	(단위:십억원)				
	2021	2022	2023F	2024F	2025F
유동자산	1,476.0	1,442.1	1,406.7	1,667.1	1,708.9
금융자산	490.3	325.4	313.3	514.5	495.1
현금성자산	322.3	258.4	245.4	444.9	424.4
매출채권	397.5	382.2	405.5	433.5	452.3
재고자산	497.1	649.2	596.1	619.3	658.5
기타유동자산	91.1	85.3	91.8	99.8	103.0
비유동자산	2,347.4	2,502.2	2,701.7	2,750.3	2,789.7
투자자산	129.0	138.0	139.2	141.5	142.9
금융자산	129.0	138.0	139.2	141.5	142.9
유형자산	2,068.8	2,135.0	2,333.2	2,379.7	2,417.5
무형자산	31.4	29.0	29.0	29.0	29.0
기타비유동자산	118.2	200.2	200.3	200.1	200.3
자산총계	3,823.4	3,944.3	4,108.4	4,417.4	4,498.5
유동부채	1,041.7	1,431.7	1,317.3	1,372.6	1,566.2
금융부채	498.1	1,025.0	817.8	835.8	1,011.9
매입채무	158.7	166.5	169.1	180.8	188.6
기타유동부채	384.9	240.2	330.4	356.0	365.7
비유동부채	1,181.8	916.4	1,094.5	1,163.8	851.6
금융부채	894.2	641.1	807.5	857.2	531.8
기타비유동부채	287.6	275.3	287.0	306.6	319.8
부채총계	2,223.5	2,348.1	2,411.9	2,536.4	2,417.8
지배주주지분	1,595.6	1,588.6	1,688.6	1,872.5	2,071.7
자본금	54.1	54.1	54.1	54.1	54.1
자본잉여금	67.4	67.4	67.4	67.4	67.4
자본조정	(3.0)	(3.0)	(3.0)	(3.0)	(3.0)
기타포괄이익누계액	55.6	46.0	46.0	46.0	46.0
이익잉여금	1,421.5	1,424.1	1,524.1	1,708.1	1,907.2
비지배주주지분	4.3	7.6	7.9	8.5	9.0
자본총계	1,599.9	1,596.2	1,696.5	1,881.0	2,080.7
순금융부채	901.9	1,340.8	1,311.9	1,178.5	1,048.6

현금흐름표	(단위:십억원)				
	2021	2022	2023F	2024F	2025F
영업활동 현금흐름	265.2	(99.4)	459.8	429.4	423.5
당기순이익	4.6	(27.5)	110.6	194.8	210.0
조정	232.4	218.5	200.6	220.6	233.1
감가상각비	184.7	186.3	201.8	233.6	242.1
외환거래손익	(12.1)	(0.8)	(3.0)	(14.4)	(10.6)
지분법손익	0.0	0.0	0.0	0.0	0.0
기타	59.8	33.0	1.8	1.4	1.6
영업활동 자산부채 변동	28.2	(290.4)	148.6	14.0	(19.6)
투자활동 현금흐름	(130.5)	(234.7)	(399.1)	(269.5)	(272.0)
투자자산감소(증가)	4.3	(9.0)	(1.2)	(2.2)	(1.5)
자본증가(감소)	(111.8)	(265.7)	(400.0)	(280.0)	(280.0)
기타	(23.0)	40.0	2.1	12.7	9.5
재무활동 현금흐름	(80.6)	264.8	(51.2)	57.5	(159.6)
금융부채증가(감소)	(26.6)	273.9	(40.9)	67.8	(149.3)
자본증가(감소)	0.0	0.0	0.0	0.0	0.0
기타재무활동	(43.2)	1.7	(0.0)	0.0	0.0
배당지급	(10.8)	(10.8)	(10.3)	(10.3)	(10.3)
현금의 증감	54.1	(69.3)	30.3	199.5	(20.5)
Unlevered CFO	261.7	208.4	384.9	517.6	546.8
Free Cash Flow	149.9	(371.6)	59.8	149.4	143.5

투자의견 변동 내역 및 목표주가 괴리율

넥센타이어



날짜	투자의견	목표주가	괴리율	
			평균	최고/최저
23.10.30	BUY	11,000	-	-
23.8.1	BUY	12,000	-34.96%	-29.75%
23.2.9	1년 경과	-	-	-
22.2.9	BUY	9,500	-30.21%	-13.47%
21.6.24	BUY	11,000	-28.52%	-3.64%

Compliance Notice

-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송선재)는 자료의 작성과 관련하여 외부의 압력이나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았으며,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여 신의성실 하게 작성하였습니다.
- 본 자료는 기관투자자 등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당사는 2024년 1월 31일 현재 해당회사의 지분을 1%이상 보유 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송선재)는 2024년 1월 31일 현재 해당회사의 유가증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조사항목은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투자등급 관련사항 및 투자의견 비율공시

- 투자의견의 유효기간은 추천일 이후 12개월을 기준으로 적용

기업의 분류

BUY(매수)_목표주가가 현주가 대비 15% 이상 상승 여력
Neutral(중립)_목표주가가 현주가 대비 -15%~15% 등락
Reduce(비중축소)_목표주가가 현주가 대비 15% 이상 하락 가능

산업의 분류

Overweight(비중확대)_업종지수가 현재지수 대비 15% 이상 상승 여력
Neutral(중립)_업종지수가 현재지수 대비 -15%~15% 등락
Underweight(비중축소)_업종지수가 현재지수 대비 -15%~15% 등락

투자등급	BUY(매수)	Neutral(중립)	Reduce(매도)	합계
금융투자상품의 비율	94.01%	5.53%	0.46%	100%

* 기준일: 2024년 01월 31일